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식는 게 사랑이다

(고전7:1~7)

1.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식는 게 사랑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전체가 다 결혼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내용만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전체의 결혼에 관한 사도바울의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 식으로 총망라해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식는 게 사랑이다.
이 제목으로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제목이 뜻하는바 내용 안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결혼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앞 6장까지 내용은 글로에의 집에 속한 사람 편에 보낸 고린도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분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그런 이야기, 또 성도들 간의 소송을 세상 걱정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 고린도 시에 편만했던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

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글로에의 집 사람 편에 보낸 이야기들에 대해서 답한 것이었고,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가 결혼에 관한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교인 중에는, 그렇게 음행이 편만한 도시 안에서 교회조차도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헬라주의적인 철학파인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처럼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과연 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과 얽혀 있는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혼이 있고, 또 이혼의 경우도 계속 읽다보면, 믿지 않는 신자와의 결혼에서의 이혼과, 믿는 성도들 간의 이혼의 문제, 또 이혼을 이미 한 상태라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궁금한 가운데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장 보편적인 기본적인 속성,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아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 7장 전체의 내용을 커버하도록 우리가 함께 생각한 이 제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봅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식는 게 사랑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뉘앙스를 알겠죠?
이 남녀 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식습니다.
그럴 때면, 꼭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뭐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본질, 사랑의 속성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이 식었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부의 사랑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식는 게 사랑이에요.
찌개를 끓여놓지 않습니까? 찌개가 식은 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찌개는 내버려두면 식게 되지 않습니까? 팔팔 끓던 찌게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식는 게 원래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라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점에 착안할 때, 남녀

의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녀의 사랑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럼 왜 하나님은, 좀 남녀의 사랑이 소설 속에서 그렇게 열망 하듯이, 영화 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듯이, 끊임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지속될 수 없게 만드셨을까, 왜? 무엇 때문에?
좀 영원한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사랑을 식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볼 때, 소 닭 쳐다보듯이 하면, 아!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에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엉?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지요.
뜨겁지 않으면 마음이 녹지 않고, 녹지 않으면 두 마음이 붙지 않으니까, 녹은 다음에 붙는 거 아닙니까? 붙은 다음에 부부가 됐으면 그 다음엔 식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남녀 간의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은 이렇게 식는 게 본성일까요?
식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식으므로 남편이 메워주던 공간이 비게 됩니다, 아내가 메워주던 마음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식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미친 듯이 뜨겁지 않으면 결혼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두 남녀가 서로 그렇게?
아! 생각할수록 신비한 거예요.
생면부지의 두 남자와 여자 성인들이 만나 가지고, 남자가 번 모든 돈을 다 여자한테 줄 정도로, 그게 보통 일입니까? 번 돈을 다 준다는 게?
부모한테도 안 주는 돈을 왜 그 여자한테 다 줘 버립니까? 그리고 그 여자는, 어떻게 그렇게 미안한 줄도 모르고 남편이 번 돈을 다 받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할 정도로, 이게 신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려면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그렇게 하나가 되지요.
그러나 그 사랑은 식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이 식고, 아내의 사랑이 식어,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잖아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과 뜨거워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과 뜨거워지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과 뜨거워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각자가 뜨거워질 때 이 부부가, 남편을 보면 날마다 새롭고, 아내를 보면 날마다 새로운 진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 전체를 걸쳐서, 사도 바울이 결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 결혼문제를 남녀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과의 갖는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결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참 행복한 결혼생활, 부부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각자가 뜨거워질 때, 남편에 대한 마음과 아내에 대한 마음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이 식는 것을 탓하지 말고, 남편의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과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내가 나를 알기를 꼭 돈 벌어 오는 기계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아내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뜨거움을 느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다.
뭐라고 나를 봐도 상관하지 말고 거기에 미혹돼서 흔들리지 말고, 무조건 하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에 돌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는 것이 느껴지면.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3년이 지났거들랑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나를 인정해 준다든지 나를 아껴준다든지 나를 위해 헌신한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하면, 부부관계는 저절로 좋아진다는 겁이다.

자, 이러한 대 전제를 놓고, 오늘 본문을 한 번 살펴봅니다.

1절 2절을 읽다가 딱 멈춰버려요, 생각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냐 하면, 1절 2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건 독신을 말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 다음의 얘기가 기가 막혀요.
첫 번째 얘기도 가슴이 뜨끔한 얘기인데, 평생을 어떻게 독신으로 살 것입니까?
근데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가슴이 뜨끔한데, 두 번째 얘기는 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는 얘기인데, 아! 이거.
여러분, 쭉 아래 내려가다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한다는 이 말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나 하면,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두 번이나 세 번인가가 그렇게 나와요, '정욕이 불타는 것 같다'
아! 낯 뜨거워요 여러분.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라면 좀 낯 뜨거워요.
맞는 말이에요, 정욕이 불타기 때문에 결혼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하나의 측면이지요.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정욕이 불타기 때문만 결혼합니까?
이제 목사님 얼굴과 사모님 얼굴을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결혼하셨잖아요? 사모님이 결혼하셨잖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볼 때, 아~ 사모님도 정욕이 불타서 그걸 주체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과 결혼하셨구나, 목사님 뵐 때도 목사님도 정욕이 불타서 그걸 주체할 수 없는 바람에 사모님과 결혼하셨구나, 에이~ 하아! 이거.

결혼과 얽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달콤한 로맨스가 전제되어 있지요, 뜨거운 정렬이 불타는 정말 헌신적인 사랑의 순간들이 있었지요.
아니 결혼을 그렇게 생리학적인 필연성으로 폄하시켜 버리고 맙니까?
오늘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결혼에 관한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분방하지 말라' 왜 분방하지 말라 그러냐 하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만 짬을 둘 일이고, 오랫동안 분방하게 되면, 또 이 정욕이 불타는 걸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사탄의 시험에 드니까.
아니, 결혼생활을 전부 이쪽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무슨 프로이드의 조상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가 무척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륜지대사인 결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 하에,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풍부한 내용들이 많습니까?
하다못해, 뭐 나라와 나라 간에 공주와 왕자를 결혼 시키는 정략결혼, 요즘은 재벌과 재벌 간의 정략결혼 이런 거, 또 사고 쳐서 하는 결혼, 평범한 중매결혼, 또 연애결혼, 그리고 심지어는 계약결혼.
결혼의 형태가 잘됐든 잘못됐든, 얼마나 결혼과 관계된 이야기가 풍부합니까?
그런데 이 결혼의 이야기를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불타는 정욕을 잠재우기 위해서 결혼하라.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

아! 얘기가… 하하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도바울 선생님의 이 마음의 생각을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 창세기에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대 선언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것도 결혼의 이유잖아요? 돕는 배필을 만든다.
그리고 아담은 뭐라 그럽니까?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굉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창세기에 남녀 간의 관계가 시작되는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런 분위기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면, 뭐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고 남편이 아내를 주장한다, 의무를 다하라 하는, 이 얘기가 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 성에 관한 욕구를 서로서로에게 다 만족 시켜주기 위해서 의무를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7절에 가봐야 의도가 들어납니다.
독신이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신을 사도바울 자신처럼 결혼 안하고 사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정욕이 불타서 주체할 수 없어서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와 맞대어 생각하면, 독신이 은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절제력이 크기 때문도 남달리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여자를 보기를 돌로 보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신체상의 신진대사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도 아니고, 은사이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은사. 은사.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까지는 정욕에 불타는 그런 상황을 막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와 함께 있지 않아도, 남자와 함께 있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을 주셨다 이겁니다.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마치 천재들이 그냥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산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독신생활이 우월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결혼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내 마음 속에 정욕이 불타고, 참을 수 없다.
이것이 독신이 은사가 아니라는 표시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이 결혼의 이유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그런데 내가 독신으로 사려면 은사를 받아야 돼요, 독신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내가 독신의 은사가 주어져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 마음 속에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면, 아~ 나한테는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 버리면 안 돼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이든, 결혼을 한 상태이든,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결혼과 연관 지어서 아주 깊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었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은사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어지는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마음이 비워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결혼을 할 사람이건, 한 사람이건,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에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처자를 미워해라.
결혼하라 하시고 또 처를 미워하라 하십니다. 거꾸로 적용돼요, 남편도 미워해야 되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아내도 미워하고 남편도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말의 내용.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편으로 채워지고 아내로 채워졌던 마음이 비워집니다, 부모로 채워졌던 마음도 비워지고, 형제와 자매도, 그리고 몸이 있기 때문에 채워진 모든 마음이 다 비워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게 은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천국이 나의 기업으로 현찰화 되는 거예요.

말로만 있는 천국, 교리적인 천국이 아니라 미래적인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천국이 나의 기업으로 느껴지고 확신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사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고린도 교인들이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어린 자들이기 때문에, 불타는 정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를 받지 못한 상태와 구분을 해 줍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점이 어디냐 하면,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은혜를 먼저 받으세요.
은혜의 충실한 은혜를 받으세요, 온전한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들어와서 내 마음이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자가 없어도 되고 남자가 없어도 되는 마음가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정욕이 불타는 상태에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섭리에요.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결혼조차도 은사로서 하려고 한다면, 독신생활이 은사인 것처럼 은사로서 하려 그런다 하면, 은총을 온전히 받으라, 구원의 은총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자가 필요 없고, 남자가 필요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은사라는 단어가 결혼의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건, 은혜가 충만할 때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면,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시면 모두가 다 독신으로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은총이 온전히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들어진 남녀의 결혼 문제를, 너희가 아직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결혼해도 좋다, 근데 내가 독신으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은사로서의 독신.

자기의 인생철학에서 나온 그런 독신이 아니라, 남녀의 문제에 대한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의견에서 나온 독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이루어진 이 독신생활을 해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러나 이것이 우월한 것도, 이것이 더욱 비교적으로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단지 나는 내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너무 좋다, 그러므로 나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너무 좋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결혼의 문제는, 온전한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더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함께 살펴 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결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부부들 간의 사랑이 식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뜨거웠던 그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각자의 뜨거운 사랑으로 변하게 하시므로, 각자 하나님과 뜨거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 부부의 모습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